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적 치유로서의 상상력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imagination as psychological treatment

- Focused on My Art Works -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김승환

심리적 치유로서의 상상력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임영재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김승환

김승환의 석사 학위논문(작품론)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 김 섭 (인)

심사위원 임 영 재 (인)

심사위원 하 원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1년 2월

# 국 문 요 약

## 심리적 치유로서의 상상력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의 발달은 삶의 영역에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과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가 계속될수록 현대사회 속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경쟁은 생존과 직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경쟁 속에서의 불안한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현대 사회 속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삶의 이점도 있지만, 타인과의 끝없는 경쟁, 빈부 격차, 과시적 소비주의, 사람의 진정성보다 상품성에 치중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한다. 현대인들은 끝없이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각자가 바라는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반면에 각자 열망하는 삶의 모습을 일상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격차가 큰 날들을 반복하며 살다보면 내적으로 불안감과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현대인들은 지친 내면을 잠시라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안정을 취하는 행위를 한다.

본인은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내면에서 바라는 것’ 과 ‘현재상황의 격차’ 가 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을 느껴왔다. 그리하여 본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희망하는 것들이나 이루고자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면 잠깐의 시간 동안이라도 현실로 인해 억압된 불만과 욕망이 해소되고 심리적 치유가 되었다. 이런 경험은 현재 작업까지도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작품형성 배경과 표현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상상을 통해 표출된 내면세계가 어떤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통해 본인이 어떤 그림의 형식을 추구하는지 알아보고 더 독창적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차 례

I. 사회적 배경 .....	1
II. 이론적 배경 .....	2
III. 대표작품 분석 .....	3
1. <작품16> .....	3
2. <작품17> .....	5
IV. 마무리 .....	7
작품 목록 .....	8
연구 작품 .....	9
참고 자료 .....	26
참고 문헌 .....	27

Abstract

## I . 사회적 배경

“현대사회 구성원들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한국사회에서의 경쟁은 치열한 생존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 패배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냉혹한 현실과 사회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사회적 가치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멈출 수 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간다.”<sup>1)</sup>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되며 현대인은 인간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 경쟁적 관계로 변질되며 자유롭지 못하는 일상을 살아간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활력을 얻기 위해 현대인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며 심리적 치유를 한다.

본인은 유년시절부터 희망하는 일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에서 오는 결핍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함과 고독함을 느꼈다. 이런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스케치북에 처한 상황에서 열망하는 것들을 상징화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그렸다. 그림에 몰입하는 시간동안 일상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결핍에서 오는 불안을 치유해주고 본인만의 상상의 세계를 창출하며 순간의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기억은 현재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상과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현실의 틀 사이의 차이에서 공허함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공상적 공간을 자유롭게 그림으로써 심리적 치유를 통해 활력을 얻고, 다시 일상에 집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사유능력 중 상상력은 중요한 정신활동이라는 것을 의식했다.

---

1)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2010) pp.22-26 참고.

## II. 이론적 배경

“상상(imagination)은 과거의 경험으로 얻은 심상(心像)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정신작용이다.”<sup>2)</sup>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들이 쌓여 축적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고방식인 상상력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는 회화예술을 창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긴 역사동안 상상력은 창작활동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본 작품론에서는 본인의 작업형식에 영향을 준 상상력이 선행된 작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세 명의 악사들(도판1)>(1921)을 보면(<참고도판1>참고), 피카소는 자신이 인지한 대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변형, 해체, 재구성을 했고 초현실주의(surrealism)화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개인적 가치(도판2)>(1952)에서는 전통회화에서 쓰이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물의 위치, 크기, 비율 등을 자유롭게 변형시켜 현실을 넘은 세계를 나타냈다(<도판2>참고). 또한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는 <아웃사이더의 대사제(도판3)>(1947)을 보면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며 물감에 이색적인 재료를 더해 자신만의 날 것 같고,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직관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독자적인 세계를 그렸다(<도판3>참고).

---

2) 편집부, 세계대백과사전 16 (두산동아, 1996) p.33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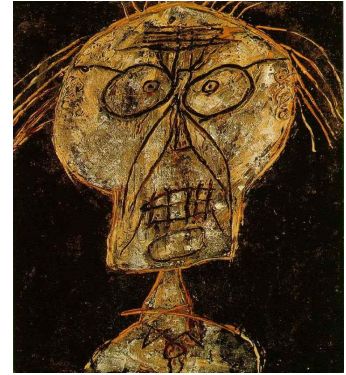




**<참고도판1>** 파블로 피카소, <세 명의 악사들(The three musicians)>, 200.7x222.9cm, oil on canvas, 1921,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



**<참고도판2>** 르네 마그리트,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s)>, 80x100cm, oil on canvas, 1952,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참고도판3>** 장 뒤뷔페, <아웃사이드어의 대 사제 (Grand Maitre of the Outsider)>, 캔버스에 유채와 에밀션 도료 혼합, 1947.

“회화에서의 상상력은 작가(타자)의 상상을 간접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감상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러한 감상 과정에서 미적 대상과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한다. 즉 타인의 상상과정이라는 간접 체험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즐거운 체험을 하게 되어 자기 이해, 자기 발전, 자기인식의 지평이 확장된다.”<sup>3)</sup> 또한 이미지들을 구성할 때,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상상력을 통해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매료되었다.

### Ⅲ . 대표작품 분석

#### 1. <작품16>

본인의 작품은 처한 환경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심상을 즉흥적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상태를 시각화 한다. <작품16>(2020)은 지루한 일상으로부터 일탈해 지속되는 불안감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었던 상황을 회상하며 그린 것이다. 그 순간에 얻은 시각적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앞에 언급했던 독자적 시점으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피카소가 인지한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형했듯 본인만의 형식으로 변형시키고 재조합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공상적 세

3) 임옥, “상상력에 기반 한 회화예술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예술에서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23-24 참고.

계를 만들어 상상에서 오는 상황을 유희적으로 표현해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특징도 적용한다. 그 날에 인상 깊게 본 모든 물체들을 현실의 비율, 물리적 위치관계, 명암법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화면을 구성했다. “이미지의 형태는 자율적, 즉흥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초현실주의의 표현법 중 하나인 자동기술법을 적용해서 내면세계를 의식의 틀에 갇히거나 얽매이지 않은 즉흥적인 드로잉적 특징이 있다. 즉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려나가 스스로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난다.” 4)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에 색을 채울 때, 공상적인 면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물감을 쓰고자 한다. 물체의 색상을 칠할 때, 그 물체의 고유한 색을 재현해야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직감으로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한다.



<작품16> Land scape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0

4)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1998) p.387 참고.

## 2. <작품17>

현대사회의 각자 다른 존재들이 집단적 경향으로 인해 개인적 행복이 아닌 누가 더 많은 욕망의 대상들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시되는 사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한 식탁에 앉아 서로 같은 대상에서 욕망을 느끼는 상황으로 연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소재들은 사적인 경험이 축적된 기억들을 바탕으로 심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타인들은 독보적 특징을 가진 존재다. 또한 동물들도 종류별로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유사한 속성이라 생각해 그림 속에서 타인들을 나타낼 때, 주로 동물의 이미지를 많이 차용한다.

작품에 구성된 이미지들의 형상화할 때, 내면상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고 즉흥적인 감각을 시각화 한다. 인위적으로 묘사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작품의 이미지들이 아동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상으로 표현된다.

본인은 색칠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재료는 유화물감이다. 유화물감은 특성상 물감이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마르는데, 이로 인해 희석된 물감 층들이 서로 흐르고 혼합되고, 채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우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작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더욱 즉흥적인 것에서 얻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예술에서 창작의 전부 혹은 일부를 우연에 맡기는 것을 ‘알레아토릭(Aleatorik)’ 이라 부른다.”<sup>5)</sup>

유화물감은 두텁게 쌓아가며 마티에르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물감을 최대한 기름에 희석시켜 빠르고 자유로운 붓터치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작품을 진행한다. 투명한 농도의 빠른 붓터치의 흔적과 불투명한 농도의 거친 붓터치들이 화면에 함께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한 화면 안에서도 농도에 따라 다른 물감의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

5)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p.24 참고.



<작품17> Party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0

## IV. 마무리

본 논문은 상상력의 사전적 개념과 예술에서 상상력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작품에서 상상력이 특징들이 나타난 선행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 형식에 대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상상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독창적인 내면세계를 형상화 하는데 필요한 정신활동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얻는 공허함,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정신적 활동이며 유년시절부터 습관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이미지를 왜곡, 변형시키는 방식을 선호하는지 더 자세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더 독창적인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고착화되는 의식에 대해 깨어나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심상들에 증폭된 상상력을 적용시키고 표현하는 기법들에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기존의 작품 보다 더 폭 넓은 관점으로 본인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표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것이다.

## 작 품 목 록

- <작품1> Kombi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9
- <작품2> Moving prison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 <작품3> Crush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 <작품4> Pop painting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 <작품5> Dog press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 <작품6> Chair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 <작품7> Daily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8> Body painting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9> Depart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0> Drunk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1> Cat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2> Brid car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3> Red tongue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4> Fornt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5> Coffee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6> Land scape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0
- <작품17> Party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0

# 연구 작품



<작품1> Kombi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9



<작품2> Moving prison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작품3> Crush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작품4> Pop painting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작품5> Dog press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작품6> Chair 130.3x97.0cm oil on canvas 2019



<작품7> Daily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8> Body painting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9> Depart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10> Drunk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11> Cat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12> Brid car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13> Red tongue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14> Fornt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작품15> Coffee 130.3x97.0cm oil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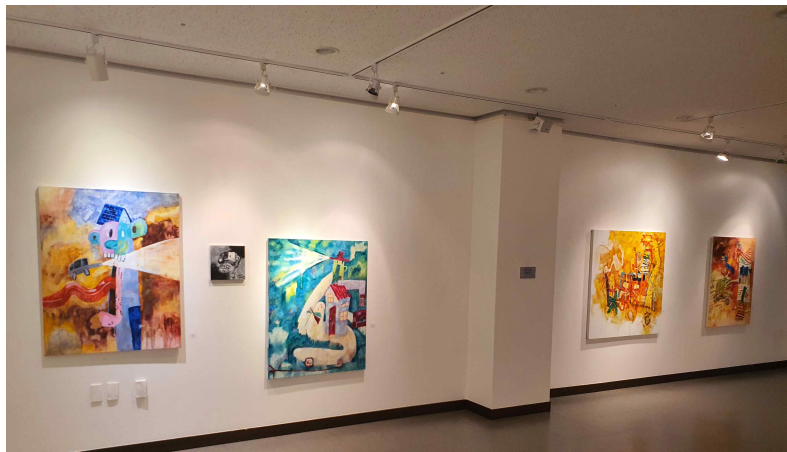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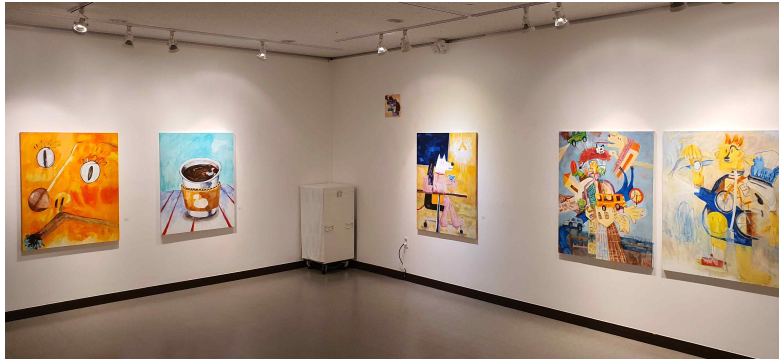


<작품16> Land scape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0



<작품17> Party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0

## 참 고 자 료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전 전경



## 참 고 문 헌

### < 저서 및 단행본 >

-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2010.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주)월간미술 1998.
-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 편집부, 세계대백과사전 16, 두산동아, 1996.

### < 학위논문 >

- 임옥, “상상력에 기반 한 회화예술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예술에서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Abstract

## imagination as psychological treatment

### - Based on My Art Works-

The evolution of science technology has brought convenience and physical change that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However, as the needs of environment have increased, competition have become inevitable in the modern society. Since the competition is directly linked with life, people live in fear that they might not survive in the competition.

There are two faces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one is a convenient life through use of modern technologies. On the other hand, this evolution have brought endless competition, economic inequality, and materialism. People these days live fiercely through competition, they work hard to live in their dreams but it is almost impossible to perfectly practice in daily life. As a result, people internally feel sorrow and anxiou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reality and ideal life.

So, people find their own way to relieve from the continuous anxiety and unwanted situation caused in daily life.

The longer I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ity and what I really desire, I felt anxious in one way. Thus, drawing while imagining that I have all the things that I hoped for, even for a brief moment, the dissatisfaction and suppressed desire in my mind were relieved and helped me psychologically whenever anxiety came back.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background and the expression of the work's formation. Moreover, the research focuses on how visualization is affected through a person's imagination. Thus, through the use of the research, I can focus on the specific field of the art and further study to create unique art-works.